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육적인 물음, 영적인 물음

내적 인간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립니다. 그분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는데, 그분의 신비스러운 탄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서임을 아십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어 주시며,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십니다. 이는 종속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이끌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덕분에 그리스도께로 오며, 따라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강제로 이끌려 온 이가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갈구하듯 그분을 알고자 갈망하며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이입니다.

하느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느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에게

배우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도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이들만이 온전하게 하느님을 볼 수 있으며, 아들께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성령을 통해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빵임을 강조하시는 것은, 죄도 자기만의 고유한 빵, 곧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죽음과 대립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빵을 먹는 자들은 자기 죄 속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주시는 한없이 만족시키는 빵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우리를 합쳐 하나의 빵 덩어리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반죽하시며, 이 결합을 통해 부패와 그 안에 숨어 있는 죽음을 파멸시키십니다. 성찬의 살아 있는 빵은 만나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 빵은 영원한 생명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이는 합당히 생명을 지닙니다. 이 빵은 곧 죄의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당신을 젖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영적 음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찬 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도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입니다. 흠어진 알곡들인 우리는 이 빵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거룩한 빵 안에 모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빵을 당신의 ‘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의 몸값으로 당신의 육을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께서 육이 되심으로써 당신의 육이 생명을 주게 하시어, 그것을 먹는 모든 이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몸을 바치셨고, 그 몸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문경 본당 최상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어, 사라지지 않는 음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갑시다.

입당성가 :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열왕기 19장 4절-8절

안 내 : 광야에서 엘리야는 천사가 준 빵과 물을 먹고 마신 다음 40일을 걸어 하느님 산 호렘에 이릅니다.

목 상 :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만사를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 “갈 길이 고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음식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길에 그 분이 항상 동행하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 에페소서 4장 30절-5장2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목 상 :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죄에 물들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6장 41절-51절

강론 : ‘육적인 물음, 영적인 물음’(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88번 ‘천사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찾은 이들입니다.

아직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침묵>

그 힘을 복돋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 주십니다.

당신을 닮도록 한껏 힘을 주십니다.

그분께 얻은 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땀을 흘리는 나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9번 ‘주를 따르리’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75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우리 구세주의 모친 마리아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셨지만 절대로 우쭐한 법이 없으셨습니다. 구세주 탄생이라는 하느님 구원 사업의 가장 큰 협조자로서 뭔가 기대하고 싶을 만도 한데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평생 자신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 없이 찾아 나가셨습니다.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과 권능의 위대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신이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부른 ‘마리아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루카 1,46-49)

암브로시오 성인은 ‘마리아의 노래’가 “성모님의 ‘완벽한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찬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찬미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존재이며 주님의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 누리려는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굽어보셨기 때문이고, 그 굽어보심은 자신이 잘 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겸

손을 가장하지도 않으며, 하느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이지만 이 과분하고 크신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과 위대함이 모두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냅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성모 마리아의 겸손의 덕이 더욱 그립고 아쉽습니다.

성모님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던 베르나르도 성인은 겸손의 덕을 몸에 익히기 위해 스스로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자신의 죄를 형제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결점에 대해 말하며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성모님의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의 겸손을 바라보십시오. 성모님은 거룩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시다. 그분처럼 겸손이 보증될 때만 큰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모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은총이 다가옴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성모님처럼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겸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일깨워주시고 겸손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참된 겸손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느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인식함에게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고백함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하느님을 떠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매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양승국 신부,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 생활성서, 2018, 55쪽)

오늘 우리는 하늘에 높이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의 복된 구원을 기리며 우리도 똑같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으로 성모승천 대축일을 함께 경축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아 마리아처럼 살면 우리도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특별히 겸손의 믿음을 통하여 누리는 복된 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겸손의 믿음, 겸손의 덕행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모님은 겸손을 자기 신앙으로 사신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마태 11,29)

겸손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18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온전히 맡겨 드린 성모님을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하느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 새로 태어나도록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59번 ‘성모 승천’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요한 묵시록 11장 19절.12장 1절-6절.10절

안 내 :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묵 상 : 성모님이 승천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님께서 온 생애를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시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들어올려질 때 믿음의 여인으로 선포되십니다.

화답송 :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제2독서 : 코린토 1서 15장 20절-27절

안 내 :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묵 상 :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느님 나라의 자유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참된 자유는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1장 39절-56절

강 론 : ‘성모승천 대축일 교구장 담화문’(5-7쪽)

예물준비성가 : 240번 ‘복되신 마리아’

영성체성가 : 167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원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께서
하느님 뜻을 받아들이시며 영혼이 기뻐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자신을 하느님 나라의 도구로 내어드리신 응답으로
온 인류가 새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침묵>

하느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당신이 희망하신 하느님 나라로 들어올려지신 영광의 날
당신의 자유와 기쁨의 노래를
저희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초대해 주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259번 ‘성모 승천’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75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8월18일, 9월1일, 15일,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총 8회)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가나 혼인 강좌

- 일시 :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안동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구
- 신청마감 : 8월 11일까지 사목국으로
- 신청자격 : 결혼을 앞둔 남·여

■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 일시 : 9월2일(주일)
- 장소 : 한실교우촌 및 상주 옥터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개인 도시락, 물
- 회비 : 5천원
- 신청마감 : 8월2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성지순례

- 일시 : 9월9일(주일)
- 장소 : 천호성지, 및 나바위성지
- 출발시간 : 휴천동 07:30/모전동 08:00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미사 준비, 묵주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9월16일(주일)
- 장소 : 한실 교우촌
- 대상 :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 준비물 : 운동화, 편한복장, 미사준비, 묵주

■ 순교자 성월 기념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까?”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제주 문화재단 <고소리> 연극 각본,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현재 <흙> <더 라인> <미스마일> <기담2> 등이 캐스팅 중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제86차 안동ME주말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8월 12일까지
- 신청자격 : 혼인한지 5년 이상 부부, 비신자, 사제, 수도자, 타종교인 가능
- 문의 및 신청
김좌중(M.콜베) 010-6580-8408
천연화(베로니카) 010-6500-8408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1일 영성 피정

- 일시 : 8월 18일(토) 10:00~17:00
- 장소 : 하망동 성당
- 강사 : 서정혁 프란치스코 신부(청주교구)
- 회비 : 5천원(식사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

313. 우리가 부름 받은 생활 신분에 따라 사랑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십 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을 언급하며, 가정생활에서 나오는 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의회는 평신도 영성이 “혼인과 가정생활의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관심사가 그 영성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생활의 관계의 역동성 안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특별한 영성의 몇몇 근본적인 특징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초자연적 친교의 영성

314.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 안에 깃들어 계신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삼위일체께서 혼인 친교의 성전 안에 현존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찬미 가운데 머물고 계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혼인의 사랑의 내밀한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315. 주님께서서는 구체적인 현실 가정이 날마다 겪는 고통과 시련, 기쁨과 희망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가정생활에서는 가식을 떨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면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진실함에 사랑이 힘을 불어넣으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기쁨과 평화로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가정 사랑의 영성은 작고 구체적인 많은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친교를 성숙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선물과 만남 안에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십니다. 이러한 상호 배려는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결합”합니다. 이는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혼인 영성은 유대의 영성으로, 여기에는 하느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 다음에 계속 -



예식장에서 만난 내 친구들...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얼마 전에 고향 친구가 청첩장을 보내왔다. 딸 결혼식이 있으니 꼭 와달라는 부탁까지 하니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기로 했다.

상주에 사는 친구의 차로 천안에 사는 친구를 태워 가기로 하여 일찍 나섰지만, 예식시간을 빠듯하게 맞춰서 도착하게 되었다. 상주에서 안양까지 가는 길이 짧은 길은 아닌듯했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골 상주와는 달리 도심 속의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모습들은 나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은 시골보다 도시생활에 물들어 있으며, 도시문화를 즐기며 산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듯하다. 도시생활이 웬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맛이 느껴져 좋은 점도 있다. 주차만 해도 그렇다. 지하2층 3층을 돌아서 빈자리 찾기가 어려워 겨우 자리를 찾아 세웠다.

곧 예식이 시작되었고, 주례사 없이 치러지는 식은 사회자의 몇 마디 절차에 따라 이어졌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주인공은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날 혼주가 된 내 친구의 모습도 참 아름다웠다. 머리손질을 우아하게 하고,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친구의 모습에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다.

요즘 예식장에 참석해 보면 혼주 측의 의사에 따라 색다른 이벤트로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게 예식을 치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신랑 우인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그날 주인공인 새신랑 새 신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도 허다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벤트를 어찌면 즐기는 것 같았다. 어떤 집은 종교 의식에 따라 엄숙한 예식을 치르는가하면, 어떤 집은 우리 세대들이 보기에 민망하리만치 화려한 예식을 치르는데 전념을 한다. 그날 고향 친구네 예식은 짧고 조용하게 혼주 측의 간결한 편지 한통으로 하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덕분에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일찍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듯한 동기들도 많이 왔었다. 나는 낮선데 그 친구들은 나를 알아보았다. 반갑다며 연락처를 주고받긴 하였지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과는 좀 어색한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내 친구들의 모습에서 중년의 꽃을 피우느라 다양하게 물들어가고, 각자의 삶대로 잘 익어가고 있다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찻집에 모여 커피 한잔으로 옛날 추억을 되살려 재밌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는 시간을 잡아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여유로운 친구들은 2차로 술 한 잔 더 하고 갈 생각이었다.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천안에 사는 친구는 그들과 어울려 당일엔 귀가를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나를 태우고 왔던 친구는 재테크에 밝아 서울에 투자꺼리가 있다며 일찍 떠났고, 대구에서 온 친구는 이 나이에든 처가댁에 가야한다며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먼저 갔다. 나는 혼자 고속버스를 타고 상주로 와야만 하였다. 예식장에서부터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었던 고향 친구 숙이와 옥이는 안양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강남 고속 터미널까지 나를 배웅해주었다. 그 친구들은 서울 생활에 익숙해 서울 지리를 꿰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와 도시를 낯설어하는 내가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맛난 도너츠와 생과일 쥬스까지 간식으로 챙겨와 벤치에 앉아 이야기 동무가 되어주던 내 친구, 그날 만났던 고향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친구들은 자식들을 하나 둘 시집 장가를 보낼 시기다. 모두가 바쁘게 사느라 자주 만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예식장에서 만나는 일이 잦을 것 같다. 요즘 예식장의 결혼식 장면도 다양하지만 친구들의 삶도, 친구들의 모습도 참 다양함을 느끼며 남은 중년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